

【안건 1】

2011년도 충남포럼 경과보고

2011년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경과보고

■ 2010년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세미나 및 정기총회 개최

- 지난 2010년 12월 29일, 계룡스파텔 1층 무궁화홀에서 포럼 임원 및 회원,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기관 및 대학교수, 충청남도 및 각 시·군 갈등업무관계관 등이 참석하여 2010년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 제1부는 “충청남도 갈등현안 동향과 해결방향 세미나”로서 최창희 충남포럼 지역원로위원장을 좌장으로 최한규 박사(전문대 IGR연구소 연구위원), 전오진 박사(호서대 사회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신기원 교수(신성대학교), 이준건 박사(갈등조정연구소장)이 발제를 하고, 심도 있는 지정토론이 이루어졌다.

- 이어 제2부는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정기총회”로서 감사패 및 감사장 전달식, 임원선출 및 이주영 제2대 상임공동대표 이임식 및 이은호 제3대 상임공동대표 취임식, 최병학 포럼운영위원장의 2010년도 충남포럼 경과보고 및 2011년도 충남포럼 주요사업계획(안) 보고, 김종문 충청남도의회 의원에 대한 「충청남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 대표발의 추진 유공 감사패 전달식 및 포럼임원 중 유공자에 대한 감사장 전달식이 거행되었다.



- 특히, 제3대 포럼임원 구성은 상임공동대표로 이은호 청주대 명예교수(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공동대표로는 (언론

계) 김승한 충청투데이 논설실장, (산업계) 정지연 테크노세미캠 회장, (NGO계) 정낙규 예산지역개발위원장, (여성계) 정준이 전 연기군여성협의회회장, 감사는 (당연직) 충청남도 회계감사 담당공무원 신임 유병운 자치행정과장, (선임직) 사업감사 연임 심규익 충남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상임고문으로는 (당연직) 박진도 신임 충남발전연구원장이 각각 선임되었다. 기존의 운영위원장은 상임운영위원장으로 명칭변경과 함께 일부 포럼 조직개편 및 정관개정이 이루어졌다.

■ 충남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3년, 사고관리의 쟁점과 과제' 관련 세미나 충남포럼 참여 주제발표

- 2011년 2월 16일, 충남포럼의 최병학 상임운영위원장은 선문대 정부간관계(IGR)연구소, 한서대 내포지역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유류유출사고를 겪어보니 해양오염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가, 선박사고처리는 해양경찰청 등으로 소관부처가 이원화되면서 피해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려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 지난해 11월 태안군 조사에서 주민들이 배상을 청구한 건수는 2만 4,718건, 6,064억 3,500만원이지만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의 배상이 승인된 것은 6,675건 207억 5,500만원에 불과하며, 이는 배상청구를 위한 자료수집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IOPC 배상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특히, 해양유류오염 사고는 국제협약에 바탕을 둔 국제보상체제가 확립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1992년 기금에만 가입하고 보상상한액을 확대하기 위한 보충기금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제는 우리도 재난·재해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예방 및 해결 노력 및 합리적 보상체계 확립이 중요한 만큼,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갈등관리의 제도적 노력과 함께 포럼의 긴요함을 강조했다.



■ 2011년 충청남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제1차 실무협의회 개최

- 2011년 3월 23일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1층)에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의 이은호 상임공동대표,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최병학 상임운영위원장, 포럼임원 및 회원, 4대 권역 대표 및 운영위원장, 충청남도 갈등관리 관계관 및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공공정책 및 사업추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효율적 예방과 체계적 해결을 위해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의 2011년도 사업운영계획을 협의하였다.



- 충청남도 각 시·군의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충청남도 시·군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건)에 대한 추진 및 협의하였으며, 충청남도의 갈등관리 분야의 역점사업과 갈등현안의 해결대책에 관한 설명 및 4대 권역간의 네트워크 정립, 활동역량 강화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가 개진되었다.
- 이는 2011년도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과 각 4대 권역별 사업 추진계획 및 방향, 충청남도과 각 시·군의 갈등관리 관계관들의 종합적인 협의로서 지역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거버넌스 구축 논의, 4대 권역별 포럼의 현장활동 및 지원방안, 충청남도 역점사업의 실현 및 포럼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제언, 특히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의 하나인 매뉴얼 개발(2010년 과제중심)과 갈등영향분석(2011년도 기준 10개 현안목록) 관련 갈등예방·관리에 관한 매뉴얼 개발, 갈등영향분석, 예산확보의 적정성 및 확보 가능성과 유지에 관한 논의, 4대 권역별 포럼의 자체적 활동 역량 강화 방안 논의, 지식·정보 공유를 위한 홈페이지 연계 추진, * 현장간담회를 통한 갈등관리 능력의 신장, 현장적용 가능한 성과창출과 효율성 증대,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교부의 적정성, 특히 시·군 대상의 권역 포럼의 연계 운영방안, 현장간담회 일정 논의 등이 폭넓게 이루어졌다.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사회갈등과정」 교육운영 주관

- 충남포럼은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2011년도 제1기 「사회갈등관리과정」(2011. 5. 23~25)에 참여하여 갈등관리에 관한 이론 및 해결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관련 교육자료는 포럼 전용홈페이지 통합지식정보센터에 게재하여 널리 활용토록 하였다.
- 이와 관련한 교과목 및 담당강사는 “공공정책 갈등의 이해”(최병학 포럼 상임운영위원장), “갈등의 이해”(신기원 서해안권포럼 운영위원장), “공공갈등의 유형별 발생요인과 해결전략”(이준건 갈등중재·조정전문위원장), “갈등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화기법”(최한규 북부권포럼 운영위원장) 등이었다.
- 한편, 11월 4일에는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갈등자유토론 시범교육”을 최병학 박사(본포럼 상임운영위원장)가 좌장을, 이상선 의장(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본포럼 초대 공동대표 역임), 이준건 박사(갈등조정연구소장, 본포럼 갈등중재조정전문위원장)가 토론자로서 나서, 충남지역 및 도정, 시·군정 갈등현안과 관련한 합의형성 및 갈등예방·해결방법론에 대해 시범교육을 실시하였다.

■ 제1차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및 위원 위촉식

- 충청남도는 2011년 5월 25일 영상회의실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위원장에 박재묵 교수(충남대), 부위원장에 최병학 박사(충남발전연구원)가 선출되었고,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도지사의 위촉식이 있었다.
- 특히, 2011년도 갈등관리 추진계획과 함께 2011년도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계획의 보고, 그동안 수행되었던 갈등영향분석 결과 보고에 이어 참석자들의 종합토론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충청남도는 갈등관리분야에 있어서 제도적 단계로 진입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 당진 동부화력발전소 건설갈등 관련 현장간담회 개최

- 2011년 7월 22일, 신성대 공학관(424호)에서 충남포럼과 서해안권포럼의 공동 개최로 당진 동부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현장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서해안권포럼 공동대표인 이상엽 교수의 사회로 서해안권포럼 운영위원장인 신기원 교수의 제안설명(발표)에 이어서 동부화력발전소 당진사업소장, 찬성측 주민대표, 반대투쟁위원회 사무국장, 반대측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 이는 동부화력발전소 현장간담회 사전 준비회의(2011. 7. 18)에서 현장의 찬-반 주민들을 직접 면담하고 지역을 순회하였으며, 쟁점은 보상, 생활, 권리 주장이 서로 얽혀있는 상황이었고, 해결가능성은 양측대표들이 극심한 불신과 반대위 축의 원칙("타협은 없다")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것이다. 그러나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동부화력발전소 건립에 관한 찬성, 반대측 지역주민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저한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자 하는데 참여자 모두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한편 2011년 11월 4일 신성대학교 본관에서 개최된 서해안권포럼 주최의 “동부그린발전소 건설관련 갈등 자문회의” 개최와 관련, 갈등쟁점에 있어서 동부화력발전 측의 사과 및 향후진행을 청취 받고자 하였으며, 반대 동향에 전환점 제공, 주민간의 신뢰회복에 작은 기여, 반대측 인사의 많은 참여 등과 관련하여 해결가능성을 타진한 중요한 기회를 만들었다. 이로써 현장간담회는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조정을 위하여 현장간담회는 현장에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실질적 강구가 필요하며, 충청남도 차원의 행정실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강조되었다.



■ 충청남도 갈등현안의 협력·대응을 위한 간담회 제2차 실무협의회 개최

- 2011. 8. 11,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1층)에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에서는 충청남도가 주재하는 “충청남도 갈등현안의 협력·대응을 위한 간담회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행사목적은 충청남도 갈등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각급 기관별 추진계획 및 대책협의를 주요내용을 이루었다.

- 이 자리에는 최병학 박사(포럼 상임운영위원장) 및 유병운 과장(충청남도 자치행정과)이 참여하였으며, 4대 권역별포럼의 운영위원장인 최한규 박사(북부권), 이준석 위원장(남부권), 신기원 교수(서해안권) 그리고 16개 시·군의 갈등관리담당부서의 관계관이 다수 참석하였다. 또한 갈등현안 및 조정·해결과정에 대한 이준건 박사(갈등중재·조정전문위원장)의 참신한 제안이 소개되었다.



- 특히, 이날 논의된 시·군의 갈등동향과 관련하여, KTX 천안·아산역 택시사업구역조정에 대한 갈등과 관련한 아산시와 천안시의 입장차이 및 충청남도(도로교통과)의 입장 등이 표명되었으며, 금산군 제2산업단지 조성 관련 갈등 및 보령시와 서천군의 연안어업 양조망 어구 고시 관련 입장 표명과 함께 연기군 및 예산군의 지역갈등 현안 및 갈등관리의 제도적 기반구축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이 개진되었다.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최병학 포럼 상임운영위원장은 현재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갈등관리 관련 조례의 금년도내 제정완료 및 예산확보,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4대 권역별 포럼의 현장해결역량 확보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회의 폐회 이후에는 4대 권역별 포럼 운영위원장들과 각 시·군 관계자들이 함께 동석하여 갈등현안 및 포럼의 현황의견들을 긴밀하게 나누었으며, 향후 충청남도의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에 적극 합심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 충청남도 소통과 상생협력을 위한 갈등관리 제2차 실무협의회 개최

- 2011년 9월 16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주재로 충남지역 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공공정책갈등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와 충남도청 사업부서 실무책임자(담당과장, 담당)들이 참여하는 대단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주제는 “소통과 상생협력을 위한 갈등관리”였으며, 주요의제는 “도정 갈등현안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 해소방안 마련”이었고, 진행은 각 담당과장들의 소관 업무 관련 갈등해소 대책보고 후 참석자 전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은호 충남포럼 상임공동대표,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박재묵 충청남도갈등관리심의위원장, 최병학 충남포럼 상임운영위원장(충청남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사는 총 33명으로 충청남도 갈등심의위원회 4명, 충남포럼 7명, 충청남도 당연직 과장 및 담당 22명이었다.



■ 전환기 예산군의 지역현안과 관련한 상생협력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충남포럼과 북부권포럼(예산군 공동대표 정낙규) 공동주최 및 충청남도과 예산신문사 후원으로 2011년 10월 28일,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최근 충남도청 이전 관련 홍성·예산 통합논의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전환기 예산군의 지역현안과 관련한 상생협력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공주대학교 윤준상 교수의 “전환기 예산군의 지역현안과 관련한 상생협력발전 방안”주제발표가 있는 후, 최병학 본포럼 상임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각 계각층의 의견수렴 내용을 통합하여 홍성·예산 통합논의와 관련하여 민간주도의 (가칭)“홍성·예산 상생발전협의체” 구성, 운영방안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냈다.



- 한편, 2011년 11월 22일 충남포럼과 북부권포럼 공동개최로 예산군 덕산에서 개최된 상생협력·갈등관리 교육에는 공무원 및 갈등관리위원, 북부권포럼 임원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이강원 소장(경실련 갈등해소센터)의 “합의를 통한 공공갈등해결”, 이준건 박사의 “사회갈등의 원인과 해결방향”, 최한규 박사의 “갈등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각각 교육을 실시하였다.

■ 전환기 민·관·군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합동 학술세미나 개최

- 2011년 11월 11일,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세미나실(2115호)에서, 충남포럼과 서해안권 포럼은 “2011년도 민·관·군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세미나”를 공동개최하였다. 특히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갈등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주제발표 등과 관련하여 충청도내에서도 잠복되거나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군사격장, 전투비행단 소음, 무기시험장 등 군사시설 입지갈등과 관련한 이번 학술세미나에서의 다양한 논의를 토대로 충청남도 갈등현안의 해법을 모색하였다.



- 갈등관리에는 민·관 이외에도 군이 중요한 협력파트너라는 측면에서 대주제는 “전환기 민·관·군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로서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가 공동주관하였고, 충청남도, 충남대학교, 한국동북아학회, 미래군사학회 공동후원으로 개최되었다. 좌장은 이은호 상임공동대표가 맡았으며, 최병학 상임운영위원장, 길병옥 민·관·군협력전문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계룡시 농공단지 입지갈등 관련 대단위 현장간담회 개최

- 충남포럼과 남부권포럼(계룡시 공동대표 정형식) 공동주최 및 충청남도와 계룡시 공동후원으로 2011년 12월 15일, 계룡시 두마면사무소(2층 회의실)에서 지방산업단지 조성 이후로 현재 추가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계룡시 농공단지 추진 입지갈등과 관련한 대단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준건 박사(충남포럼 갈등중재조정전문위원장)는 “계룡시 농공단지 추진과정과 상생발전

전략”을, 최한규 박사(북부권포럼 운영위원장)는 “타 자치단체의 농공단지 협력 운영 실태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이어 최병학 박사(충남포럼 상임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찬성측 인사와 반대측 인사를 참석시킨 가운데 각기 주장과 논리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 종합적 공통분모를 도출하여 참석자들에게 제시하였다.



- 한편, 2011년 11월 17일 충남포럼과 남부권포럼(계룡시)이 공동개최로 계룡시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 상생협력·갈등관리 교육에는 담당공무원 및 갈등관리포럼 운영위원, 남부권포럼 회원들과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갈등사례 및 협상기술, 갈등관리의 역할과 향후전망 등을 강조하였다.

■ 중부권(서천군)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교육 실시

- 충남포럼과 중부권포럼(서천군 공동대표 양금봉, 서천군의회 의원) 공동주최 및 충청남도과 서천군 공동후원으로 2011년 11월 25일, 서천군 장항읍사무소(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상생협력·갈등관리 교육에는 남부권포럼 임원 및 회원들과 담당공무원 및 다수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공공갈등관리의 중요성과 갈등예방 및 해결방법론, 사회통합 및 상생협력방안 등을 중점 교육하였다.

■ 민관합동 갈등관리세미나 개최 관련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참가

- 국무총리실(국정운영1실), 한국행정연구원(사회통합연구부)가 공동주관한 제4회 갈등해결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갈등관리세미나가 2011년 10월 13~14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되었으며, 여기에는 하혜영 박사(국회 입법조사관)의 “갈등의 원인과 해법”, 이강원 소장(경실련 갈등해소센터)의 “합의형성 프로세스의 절차와 기법: 협상과 조정” 등이 발표되었



였으며, 종합토론에는 전국의 갈등관리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이 다수 참가한

가운데 충남포럼에서는 최병학 상임운영위원장, 이준건 갈등중재조정전문위원장, 최한규 북부권포럼 운영위원장, 이준석 남부권포럼 운영위원장, 충청도청 김현경 포럼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널리 개진하였다.

■ 제4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 개최

- 충남포럼과 충남발전연구원이 주최·주관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의 후원으로 사회통합, 갈등해소, 상생·협력·공존공영 등 충청남도와 관련된 각종 갈등사안에 대한 정책문제로 이론과 현실을 연계·접목하여 지역의 상생협력과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를 통



해 학생들의 학문적 발전을 꾀하고, 지역 및 공공갈등분야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4회 전국 대학(원)생 충청남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차 심사(논문 서류심사)에 이어 2차 심사(발표 최종심사)로 이어졌다.

- 이날 이은호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상임공동대표와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전국 대학(원)생이 사회통합과 상생협력에 평소 높은 학문적 관심을 갖고 지역 및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임을 강조했다. 또한 신기원 심사위원장(신성대 교수, 서해안권포럼 운영위원장)은 전년에 비해 다양하고도 신선한 논문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문대회에는 대학원생 응모가 부진하였으며, 따라서 객관적이고도 엄격한 논문심사 실시 및 논문수준 관리의 철저 방침에 따라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수여되지 못하였음을 전하였다.

- 최종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학원생 부문 : 충남발전연구원장상(“환경갈등을 둘러싼 원인과 해결방안 연구: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의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장은영 외

1명),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상임공동대표상(“동원제도의 변화시 군직업주의 개념적용에 의한 민·군 갈등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송승준)

- 대학생 부문 : 충남발전연구원장상(“갈등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형성 전략 연구: 천안시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이준성 외 3명 ;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주민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성군·예산군 통합과정을 중심으로”, 혜전대학교, 장향순 외 2명 ; “천안시 대학교 봉사동아리 연합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지혜 외 4명),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상임공동대표상(“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갈등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이지숙 외 2명 ; “군사시설이전에 관한 갈등관리 연구: 국군정보사령부 안양시 이전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정명훈 외 4명 ;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공갈등과 그 해결방안”, 충남대학교, 허명수 외 3명)
- 이번 논문대회를 준비한 최병학 박사(충남포럼 운영위원장)는 제4회 우수논문대회를 통해 전국의 대학(원)생들이 상생협력과 갈등관리에 관심을 갖고 학문적, 실무적 성과를 높여달라고 주문했으며, 충남도청의 관계관은 앞으로 충청남도의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분야 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수행에 있어서 실무적 차원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그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